

< 아침내 복을 얻다 >

신명기 8:11-16 / 새찬송가 28 (통일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다면 마지막이 다를 것입니다

시편73편 아삽의 시에는 악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고통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고생하지 않고 교만하며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산은 늘어가고 심지어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 그러나 악인들의 마지막은 순식간에 멸망하여 꿈처럼 사라지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시73:16-20).

반면 의인은 시편 92편에서 ‘여호와와 함께 심겨 번성하고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다’고 말합니다(시92:12-15). 즉 그 말년이 좋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시34:19). 의인은 평소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 결말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잠4:18,19). 의인의 길은 그 끝이 돋는 해같이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습니다. ‘아침내 복을 얻는 것’은 의인입니다(신8:16).

다시 말해 의인의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어 ‘의인’을 만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중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계22:13). 이 말씀은 죄악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것이고, 죄악의 마지막은 주님의 심판으로 제거될 것이며, 아침내 축복과 천국이 주어진다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 성도를 넘어서서 의인이 됩시다

아침내 받는 축복은 성도가 아니라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성도와 의인의

차이를 알고 성도가 된 다음에는 의인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아직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죄 사함과 용서함을 받은 성도가 된 후에는 이제 의롭다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롬8:30).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것이니 죄 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길 때 타산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도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신 8:11,12).

또 상황이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으며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악에서 떠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신8:15,16).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품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합니다(사26:7).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의인의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 사람은 욥이나 다윗같은 사람들입니다(욥1:6-8). 욥은 악에서 떠난 자 즉 의인이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그가 고난당했을 때에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인의 기질을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적용&실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성령충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